

“Y프로젝트 총체적 부실” 설계공모 의혹 등 질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 부실, 설계 공모 비리 의혹, 집행 지연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신활력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 비리와 관련,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1천만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무원 2명을 포함한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귀순 “강기정 시장 즉각 사과해야”

채은지 “하상여과 계획 실현성 낮아”

서임석 “서창조망대 관리 소홀 문제”

광주시 “당혹…사법부 판단 지켜볼것”

며 “조직적 비리 의혹이 짙은 만큼 강기정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 시장은 올해 6월 ‘경찰 수

사권 남용’, ‘이따위 짓거리’ 등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시민과 의회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의혹 제기 이후 내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주무부서와 시장 모두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반복해 왔다”며 “Y프로젝트는 3천755억원 규모의 핵심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비리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광주시 자체 조사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우선 개입 여부, 투자심사 절차 위반 경위, 예산 편성 과정의 적법성, 시장·본부장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익사이팅존 설계 중지가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예산 집행을 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수질 및 용수 확보 계획과 관련, 하상여과수를 활용해 1일 10만t을 확보한다는 기본구상안의 실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가 영산강 물순환 체계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하상여과수를 일일 10만t 규모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진행된 영산강 맑은물 공급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서 해당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크게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또 “지질 특성상 영산강은 세립토 비중이 높아 실제 취수 가능량이 목표의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타당성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나주호·담양호 방류 조정 방안 역시 농업용수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조기 용역 단계에서 총

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후속 용역에서 동일한 결론을 반복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서창감성조망대 시공 사양과 유지 관리 상태를 언급하며 “난간 구조가 외기 영향에 취약하고 철새 서식 환경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다”며 “개장 이후 덮개 하부 볼트에서 녹이 발생하고 ‘어린이왕자조형물’은 사라지는 등 도난 또는 철거 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설계 공모 계약은 현재 정지 상태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내부 감사는 수사가 끝난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 공모 비리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해 이 본부장은 “심사위원 사전 유출 등 새로운 부분이 드러나게 돼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하상여과 기대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선 하천수·하수처리수 등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은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현장에서 열린 ‘LNG탱크지붕 상량식’ 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상량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탱크지붕 상량...공정 ‘착착’

총 1조4천억원 투입...2028년부터 가동

경제 활성화·에너지 경쟁력 강화 기대

전남도는 5일 “여수 묘도에서 1조4천억원 규모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탱크 지붕 상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량식은 지난해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착공한 터미널의 주요 공정인 LNG 탱크 지붕 설치를 기념하는 행사다. 김영록 전남지사, 주철현 국회의원,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최정기 여수부시장,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LNG 저장탱크 상부의 탱크 지붕 체결 과정을 스크린으로 지켜보며 사업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은 여수 묘도 27만여㎡(8만3천평) 간척지에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3기, 10만t급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가동 예정이다. 2047년까지 여수·광양만권 산업단지에 연간 300만t 규모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기존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공급, 지역 기업의 에너지 원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정부 지정 ‘기회발전특구’에 전국 최초 투자 실현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여수·광양만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막대하다. 생산유발효과 2조8천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3천명으로 여수시는 매년 3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통해 20년간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에서 “LNG허브터미널 공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돼 여수·광양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 수상

전남도는 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광주전남지사 연차대회’에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누적 기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된다.

전남도는 2017년 충남지역 수해복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 202

5년 경북, 의성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등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전남으로 들어오게 됐고 전남도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광주·전남 AI 수도로 힘껏 나아가겠다”며 “AI 시대에도 사랑과 연대를 나누는 적십자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광주시장 출마”

진보당 입당 “상상 이상의 광주 만들것”

이종욱(사진)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본부장은 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년 공직생활 경험과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으로서 노동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과 노동을 아는 시장,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공직을 마치고 진보당에 입



당했다”며 “호남의 전성기, 상상 이상의 광주를 이종욱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제 광주는 기존의 정치와 행정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며 “100만대 친환경자동차 도시 광주의 기반을 만들고 K-민주주의 브랜딩을 통해 문화·예술, 건축 관람객이 북적대는 ‘아시아문화전당 2.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

